

이정현 “호남 발전의 한 축...책임감 느낀다”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사업 지원 약속

새누리당이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보수정당 최초 호남출신 이정현 대표 취임후 처음 열린 협의회에서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호남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분명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사관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씨를 되살리고 호남에서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이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국토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운 시장께서 광주시를 노사분쟁 제로시티로 만들겠다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는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 생각하며 국비예산이 결실로 맺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광주형 일자리로 제조업 위기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권석창·성일종·정운천 예결위 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원범기자 coolguy@kdaily.com

전남 어촌체험 겨울에도 OK

요트·모닥불 조개구이 등 프로그램 개발...도시민 연중 휴양 유도키로

전남도는 요트는 물론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모닥불 조개구이 등 사시사철 도시민이 찾아와 쉬며 휴양할 수 있는 다양한 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남의 해안선은 지구 반경보다 길고, 섬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곳곳에 어촌 체험 거리가 널브러져 있다.

지난 2일 장흥 대덕읍 신리 어촌 체험마을 개막이 체험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맨손으로 고기 잡고, 갯벌을 걸어 다니며 조개도 캔 수 있어 정말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고 극찬했다.

문제는 이런 체험거리가 여름 한 철이라는 점이다. 겨울에는 이렇다 할 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연말까지 ‘요트가 있는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9월 중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요트 계류시설, 기존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등 현지 여건을 조사해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2017년 5월부터 요트 승선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어촌계가 ‘겨울 바다 파도소리 길’, ‘어촌 마을 밤상’, ‘모닥불 조개구이’ 등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해 제안하면 도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촌 체험마을은 도시와 어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늘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조성, 지금까지 전국에 10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보성 선소 어촌체험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어촌 체험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은 총 48만9천명, 체험마을에서 벌어들인 직접 소득액은 20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투자자산운용, NH농협생명, NH농협투자자산운용, NH농협생명, NH농협투자자산운용 등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투자자산운용, NH농협생명, NH농협투자자산운용 등이 참가했다.

/임재만기자 iam@kdaily.com



농협 조합장 투표 참여해 주세요 5선 조합장의 불명예 낙마로 공석이 된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구 금화로서창농협 본점 앞에서 부채를 나눠주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기자 kki@kdaily.com

광주시의회 12년만에 복수 교섭단체 구성

국민의당 이달중 원내 교섭단체 등록

광주시의회가 12년만에 양당 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달 안에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기로 하고 개별 의결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23일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원내대표, 대변인 등 진용을 갖췄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당내 시·군·구의원 연찬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13총선을 전후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당 체제로 재편된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민주만 교섭단체를 구성해 반쪽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시의회는 복수 교섭단체를 갖추게 됐다.

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등장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체제였던 4대 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무렵인 2004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복수 교섭단체 구성으로 그동안 사실상 일당 독점이었던 시의회 의정활동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의장단 중심 운영방식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설정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한 시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등록서류를 이미 받아왔고, 의원 상당수도 교섭단체 구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를 거친 뒤 이달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최원범기자 coolguy@kdaily.com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당내 시·군·구의원 연찬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13총선을 전후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양당 체제로 재편된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더민주만 교섭단체를 구성해 반쪽 논란이 일었으나 국민의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시의회는 복수 교섭단체를 갖추게 됐다.

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등장한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체제였던 4대 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무렵인 2004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복수 교섭단체 구성으로 그동안 사실상 일당 독점이었던 시의회 의정활동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의장단 중심 운영방식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설정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한 시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등록서류를 이미 받아왔고, 의원 상당수도 교섭단체 구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를 거친 뒤 이달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최원범기자 coolguy@kdaily.com

천정배 “내년 대선 호남 대권주자 나와야”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민생투어 첫날인 23일 무안 남악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에서 호남주도 정권교체와 더불어 호남 대권주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내년 대선은 무능한 현 정권의 행태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전 공동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뤄야 호남이 소외를 받지 않는다”면서 “중도 세력을 규합해 정권교체의 밑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입을 추진 중인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 꼭 필요한 인재로 평가했다.

20대 국회 출범 후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아니라 여소야소(與小野小) 국회다. 그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 정당이어야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 등 모든 걸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협치가 필수적이다”면서 “사안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당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 호남의 선택으로 인해 지역예산을 더 가져올 수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공정, 민생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근처에는 극소수 특권, 기득권 세력 독점·독심이 자리잡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치부터 상생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여야 대화하는 정치로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대흥사 등을 둘러보며 민심을 청취했다. /임재만기자 iam@kdaily.com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민생투어 첫날인 23일 무안 남악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에서 호남주도 정권교체와 더불어 호남 대권주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내년 대선은 무능한 현 정권의 행태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전 공동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뤄야 호남이 소외를 받지 않는다”면서 “중도 세력을 규합해 정권교체의 밑받침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입을 추진 중인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 꼭 필요한 인재로 평가했다.

20대 국회 출범 후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아니라 여소야소(與小野小) 국회다. 그 이유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 정당이어야 독자적으로 법안 통과 등 모든 걸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협치가 필수적이다”면서 “사안에 따라 중재할 수 있는 당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 호남의 선택으로 인해 지역예산을 더 가져올 수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3년(경제적 불평등, 사회 불공정, 민생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근처에는 극소수 특권, 기득권 세력 독점·독심이 자리잡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치부터 상생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여야 대화하는 정치로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방문을 시작으로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대흥사 등을 둘러보며 민심을 청취했다. /임재만기자 iam@kdaily.com

“섬발전진흥원 건립 적극 검토하겠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 목표 달리고 방문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영토 도발로 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이 23일 목포 달리도를 방문해 “앞으로 도서종합계획 마련과 예산지원을 통해 섬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섬마을인 달리도를 찾은 김성렬 차관은 “섬은 우리가 그동안 잘 닦아 쓰지 못했던 보배”라면서 “우리나라의 섬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은 44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이른다. 섬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섬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영토수호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칭 ‘섬발전진흥원’ 설립에 대해 김 차관은 “섬의 인구, 생활여건, 자원, 발전기반 등 구체적인 세부통계도 지자체와 행자부가 함께 조사·관리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행자부는 도서의 현황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섬발전센터’를 설립했는데, 향후 섬발전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영토 도발로 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가운데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이 23일 목포 달리도를 방문해 “앞으로 도서종합계획 마련과 예산지원을 통해 섬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섬마을인 달리도를 찾은 김성렬 차관은 “섬은 우리가 그동안 잘 닦아 쓰지 못했던 보배”라면서 “우리나라의 섬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은 44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이른다. 섬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섬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 영토수호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칭 ‘섬발전진흥원’ 설립에 대해 김 차관은 “섬의 인구, 생활여건, 자원, 발전기반 등 구체적인 세부통계도 지자체와 행자부가 함께 조사·관리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행자부는 도서의 현황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섬발전센터’를 설립했는데, 향후 섬발전진흥원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skim@kdaily.com

http://www.donggu.kr/

광주광역시 동구
GWANGJU DONGGU

2016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동구**를
상상하다!

공모기간
2016. 8.22. ~ 9.20. (30일간)

응모자격
동구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내용 | 구정 전반에 관한 발전 방안 및 시책 아이디어
(분야별 선택 공모 : 1인 다수 응모 가능)
① 문화·관광분야 / ② 청년·교육분야
③ 도시·교통분야 / ④ 경제·창업분야
⑤ 보건·복지분야 / ⑥ 환경·복지분야
⑦ 기타분야

응모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 「동구를 상상하다」 2016.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선택
· 우 편 : (61466) 광주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기획홍보실 제안공모 담당자 앞
· 팩 스 : (062) 608-2299
· 방 문 : 동구청 기획홍보실 정책평가계

시상내역 | 구청장상 및 시상금
금상(1명) 100만원 / 은상(2명) 50만원
동상(4명) 30만원 / 장려상(6명) 20만원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홍보실 ☎ 062-608-2291
※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제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